조계종 지원으로 튀르키예 '한국마을' 조성

튀르키예 이재민 지원 현장

아름다운동행, 컨테이너 100개
일화 스님, 5월 4일 현장 살펴
"튀르키예 6.25 참전 형제 국가"
이재민 돕기 캠페인 참여 당부

튀르키예=임은호 기자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과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범종 스님은 5월 4일 동행이 지원하는 컨테이너가 설치될 '한국마을'을 방문, 조성 상황을 살펴봤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하타이주 거리 모습.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은 '한인마을' 점검 후 인근 임시거주지인 텐트촌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올해 2월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진도 7.8이라는 유례없는 강진이 발생했다. 6만여 사상자와 10만여 부상자, 400만 채 건물 피해, 45조 원에 달하는 경제 손실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 이번 강진은 21세기 들어 역대 6번째로 인명피해가 큰 자연재해로 기록됐다.

한순간에 가족과 집을 잃고 실의에 빠진 튀르키예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전세계에서 구호 손길이 이어졌다. 조계종이 설립한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조계종 총무원장)도 삶의 터전이 무너진 이재민을 위한 임시 주거 시설 지원에 나섰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하이타주 이스켄데룬스시(Hatay Iskenderun)에 조성된 임시 거주처 '한국마을'(Korean Village) 설립에 자비나눔을 실천한 것.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과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범종 스님은 5월 4일 컨테이너 설치가 한창인 '한국마을'을 찾아 조성 상황을 살펴봤다.

이번 '한국마을' 조성은 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미르, 남동부 등 현지 4개 한인회를 대표하는 튀르키예한인총연합회의 주도로 성사됐다. 튀르키예 정부는 지진 직후 발 빠르게 전국 18개 구역을 이재민 지역으로 선정했고, 그중 한 곳에 대한 지원을 튀르키예한인회에 요청했다. 한인회 주도로 조성되는 만큼 해당 지역은 '한국마을'로 명명됐다.

같은 시기, 아름다운동행에서도 이재민들을 위한 컨테이너 지원을 계획하고 있었다. '한국마을'이 조성된다는 소식에 아름다운동행은 한인회와 협력키로 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3월 27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서에는 아름다운동행이 컨테이너 주택 100개(6억 상당)를 후원하고, 한인회는 설치에 대한 관리 감독을 맡아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애초 컨테이너 200개 규모로 계획됐던 '한국마을'은 아름다운동행의 후원소식에 360개 규모로 확장될 수 있었다. 4인 가족, 1500여 명이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는 거주지가 마련된 순간이다.

튀르키예한인회는 4월 10일, 이스켄데룬시에서 이스마일 차타클르 현지 내무부 차관, 이원익 튀르키예 한국 대사, 파티흐 토스얄르 이스켄데룬시장, 이스켄데룬 거주 한국전쟁 참전용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마을 건립 기공식'을 열었다. '한국마을'이 조성된 이스켄데룬시는 첫번째 지진 진원지인 가지안테프 지역에서 150여km 떨어졌다. 지진피해가 전혀 없었던 지역은 아니지만, 근방에서는 인명피해가 크지 않은 비교적 안전한 위치다.

'한국마을'은 2만7700㎡(약 8380여 평) 부지에 360개 컨테이너로 조성됐으며 내부에는 샤워부스, 세면대, 싱크대가 설치됐다. 우리나라와 기후가 비슷한 튀르키예의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추가로 순간온수기, 에어컨 등도 설치한다. 마을 안에는 행정실과 보건실, 세탁실, 종교실을 비롯해 놀이터, 문화 프로그램 공유 및 어린이 교육 등을 위한 문화센터 등도 차차 마련해 이재민들이 장기간 거주해야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투입비용은 200만 달러, 한화 약 26억 원이다. 현재 배수와 전기 등 재반 공사가 마무리됐고, 컨테이너도 대부분 설치됐다. 에어컨과 인덕션 설치 등 내부공사가 마무리 되면 5월 말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이날 '한국마을' 현장에서 상황을 꼼꼼히 살핀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은 "대규모 재난 재해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면 의료, 식량, 주거 등의 문제가 발생해 시급한 지원이 요구된다"면서 "특히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전염병 등에 대비하고자 재건복구 이전까지 임시라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컨테이너 주택을 지원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튀르키예는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달려온 형제국"이라고 강조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한국불교도 튀르키예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화 스님은 이날 '한국마을' 점검 후 임시거주지인 텐트촌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한국마을'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임시거주지에는 현재 600여 텐트에서 2500여 명의 이재민이 거주하고 있다. 전기와 수도 사용이 원활하지 않아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하는 상황이다.

텐트촌에서 만난 이재민 유젤(65)씨는 "무엇보다 힘든 것은 지진에 트라우마로, 지금도 공포에 휩싸이면 집 붕괴 당시 짓눌렸던 폐가 아파온다"고 호소하고 "컨테이너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불교계에서 컨테이너를 지원했다고 들었다"면서 "종교를 불문하고 편견없이 지원해 준 한국불교계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국마을' 조성 이끈 사람들

"재건 복구까지 성심성의껏 임할 것"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



2월 6일 발생한 튀르키예 강진 후 텐트생활을 하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임시주택 컨테이너 100개를 지원하고 돌아온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은 "낮에는 더위로, 밤에는 추위에 시달리고 있는 텐트촌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안락한 컨테이너 임시 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일화 스님은 이번 지원에서 눈에 띄는 성과로 재튀르키예 코트라, 튀르키예한인회, 에르지예스대학교 등 현지 단체들과의 협업을 꼽으며 "국내외 협력사업의 결과물로도 좋은 예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내에서 컨테이너 지원을 준비하던 아름다운동행은 '한국마을' 조성 소식을 접하고 현지 단체들과 협력,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큰 규모로 이재민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스님은 "국내에서 준비해 지원하고자 했다면 금전, 인력적 문제로 많은 이재민을 도울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현지 단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 신속하게 소통,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의 계획도 밝혔다. 일화 스님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 재건 복구까지 관심의 끈을 놓지 말 것을 당부하셨다"면서 "향후 마무리까지 성심성의껏 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준 불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한 일화 스님은 "재난이 있을 때마다 종교를 불문하고 자비심으로 모연에 동참해준 불자들 덕분에 조계종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세계시민을 위한 일들에 귀 기울이며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튀르키예 지원, 불교 알리는 기회되길"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범종 스님



"종단의 이재민 지원을 계기로 한국과 튀르키예 우호 관계가 더욱 돈독해짐을 느낄 수 있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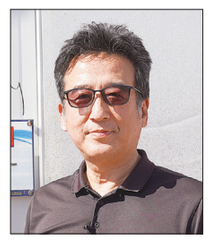
조계종단을 대표해 튀르키예 이재민 지원 현장에 온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범종 스님은 '형제의 나라'의 의미를 더욱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스님을 포함한 일행들에게 밝게 웃으며 합장인사를 건네는 이들의 모습에 감동한 것. 그러면서 몸과 마음이 크게 다친 이재민들이 '한국마을' 임시주택에서라도 안정을 찾길 염원했다.

범종 스님은 특히 '한국마을'에 조성될 문화센터에도 깊은 관심을 표했다. 스님은 "문화센터에서 진행될 각종 프로그램은 우리 문화, 특히 불교를 튀르키예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우리 종단이 관심을 갖고 한인회 등과 협업, 프로그램 지원에도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종교, 인종, 문화는 다르지만 인류에 대한 자비심은 누구에게나 똑같다"는 범종 스님은 "튀르키예가 하루빨리 재건될 수 있도록 조계종단도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 편견 없는 불자들에 감사"

김영훈 튀르키예한인총연합회장



"무슬림이 대부분인 튀르키예에 아무런 종교적 편견없이 대량의 컨테이너를 지원해준 한국불교계와 불자님들 감사합니다."

김영훈 튀르키예한인총연합회장은 '한국마을' 조성의 일등공신이다. 재튀르키예 한인으로서 지진발생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생각했다는 김영훈 회장은 "한국인들의 정성을 한 곳에 집중, 효과적으로 이재민을 지원하고자 한국 마을을 조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튀르키예 지진 이재민을 돕기 위해 국가가 이름을 사용해 마을을 만드는 사례는 한국이 처음이기에 더욱 뜻깊다.

"지진피해는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닌 복귀될 때까지 2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김 회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현지 한국대사관과 총영사관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이뤄진 만큼 효과적으로 이재민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튀르키예 內 한국문화 전파 노력"

박용덕 튀르키예한국문화교류협회장



"'한국마을' 내에서 경험하게 될 다양한 K-컬처 기대하세요."

5월 말 입주를 시작할 '한국마을'에는 다양한 한국문화를 선보일 수 있는 문화센터도 건립된다. 문화센터 운영은 튀르키예한국문화교류협회가 담당할 예정이다.

문화센터에서는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포함해 이재민들의 정신적 문제에 도움을 줄 상담소와 아이들을 위한 방가 후 교실, 직업 훈련 등이 운영될 계획이다. 문화센터는 5월 말, 이재민들이 입주하면 자연스럽게 운영에 들어간다.

박 회장은 "한국 음악과 음식, 언어, 한국불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중에 있다"면서 "세계적인 K-pop 인기로 인해 튀르키예 사람들도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은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다양한 한국문화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튀르키예=임은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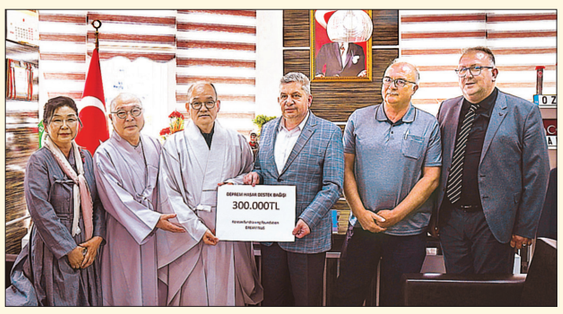
아름다운동행의 '아름다운 후원'

일상회복, 나눔으로 더 가까워졌다

5월 8일, 주이스탄불 총영사관
인덕션 370개…1500만 원 상당
30만 리라…쌀 등 생필품 전달
200명 임시 기숙사 찾아 위로도
"불자 십시일반 결과" 지원 약속



조계종은 주이스탄불 총영사관에 컨테이너에 설치될 인덕션 370개(1500만 원 상당)도 전달하며 이재민들의 일상회복과 건강한 삶을 염원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임시 거주처 중 한 곳인 뷴얀시를 찾아 지원금 30만 터키리라(한화 약 2000만 원)을 전달하고 위로를 말을 하기도 했다.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조계종 총무원장)이 튀르키예 지진 이재민에게 임시주택 100개를 지원한데 이어 지원금과 생필품을 전달하며 이재민들의 일상회복과 건강한 삶을 염원했다.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과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범종 스님은 5월 8일 이스탄불에 위치한 주이스탄불 총영사관을 방문, 이우성 총영사에게 전기 조리 기구인 인덕션 370개(한화 150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인덕션은 이스켄테룬시에 조성된 '한국마을' 임시주택 360개에 개별 설치될 예정이다. 여유분은 문화센터 등에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종의 지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한국마을'의 규모가 커지자 안전과 위생 등을 고려해 공동식당보다는 컨테이너 별 개별취식으로 조성이 변경됐고, 소식을 접한 조계종은 컨테이너에 이어 인덕션까지 통큰 지원을 하게 됐다.

이날 전달식에서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은 "이재민들이 조금이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개별 지원키로 했다"면서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한인회와 기민하게 소통,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우성 주이스탄불 총영사관 총영사는 "튀르키예 재건 성공을 위해 국제사회가 지원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의 컨테이너 지원으로 이재민들의 거주처인 '한국마을'이 원활히 조성될 수 있었다"면서 "이러한 지원은 한인사회가 튀르키예 내에서 국민들과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달식 후에는 재이스탄불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방문, 튀르키예한국기업협의회장인 이동원 관장과 면담했다. 이동원 관장은 "이번 재난 협조는 양국 간의 협력관계를 돈독히 해 우리나라 기업과 국민들이 튀르키예에서 활동하는 데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며 조계종의 각종 지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범종 스님도 "불자들의 자비손길을 계기로 앞으로 튀르키예와 대한민국이 더욱 돈독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일행은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임시 거주처 중 한 곳인 뷴얀시를 찾아 이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염원하고 지원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5월 5일 튀르키예 뷴얀(Bünyan)시청에서 오즈칸알튼 뷴얀시장을 만나 이재민 지원금 30만 터키리라(한화 약 2000만 원)을 전달하고 위로를 말을 전했다. 이날 아름다운동행이 전달한 지원금은 쌀과 밀가루, 렌틸콩, 차이 등 이재민에게 꼭 필요한 생필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오즈칸알튼 시장과의 만남 후 일화 스님과 일행은 카이세르대학 기숙사에 임시 거주하고 있는 이재민들을 직접 만났다.

2살 아들과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라비앙(28) 씨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지진 당시 건물에 깔리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지만 뷴얀시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현재 거의 나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주일 후 가족이 함께 옮겨갈 컨테이너가 한국 불교계에서 지원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감사하다"면서 "고통스럽기만 했던 순간을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삶은 계속되고 있으니 천천히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